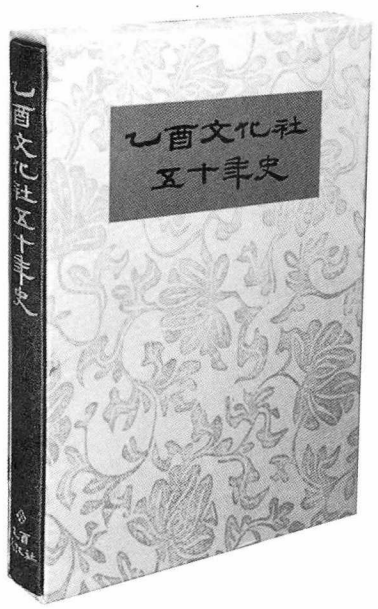
한국 현대출판 반세기의 산 증언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펴낸 《을유문화사 50년사》

굴곡 많던 한국 현대사의 반세기를 책과 함께 걸어온 출판계 노포 을유문화사(사장 정진숙)가 자사의 지나온 발자취를 기록한 《을유문화사 50년사》를 발간했다. 지난 95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 사사는, 1945년 해방의 감격 속에 의욕적인 출간으로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출판문화 성장의 핵심을 이뤄온 을유문화사의 기나긴 족적을 출판사회사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한국현대사의 반세기를 책과 함께 걸어온 출판계 노포, 을유문화사의 지나온 발자취를 기록한 '사사'가 발간됐다. 이 사사는 50년의 튼실한 뿌리를 박고 서 있는 을유문화사라는 거목이 천박한 실용주의가 넘치는 이 시대에 넉넉한 그늘을 드리워주고 있음을 증언한다.

정진숙 을유문화사 대표.

소박한 창업이념으로 출발

을유문화사의 창업(1945년 12월1일)은 민병도(전 한국은행 총재)·정진숙·윤석중(새싹회 회장) 조풍연(수필가·1991년 타계) 등 네사람의 동인이 의기투합하면서 이뤄진다. 이들 동인 중 조풍연을 제외한 3인이 아흔을 바라보며 《을유문화사 50년사》 발간을 지켜보는 감회를 담아 각별한 애정을 보여준다.

해방 감격의 연장에 선 창업 이념은 민족문화의 젊은 기수를 자임하는 의욕과 결의로 가득찼다. '원고를 엄선' '교정을 엄밀히' '제품을 지성으로' '가격을 저렴히' 같은 소박한 창업이념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거창한 구호보다 민족문화 향상을 출판의 실천적인 몫으로 이루자는 다짐이었다.

반세기에 걸친 을유문화사의 출판흐름은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 '민족문화 향상'의 창립이념을 실현하는 국학관계 출판과, 외국문화의 소개 흡수가 그것. 해방 직후 이념적인 혼란 속에서 탄탄한 문화의식으로 무장한 을유문화사는 단기간에 굵직한 출판물을 잇따라 발간, 국내 굴지의 출판사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초창기 기반 확립기이다.

창업 두달만에 선보인 처녀출판물은 이각경의 《가정글씨체첩》. 누구나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는 얇은 한글 글씨본으로 6원에 보급됐다. 맞춤법 하나 제대로 정립돼 있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던 그 무렵 한글 회복의 의지를 출판으로 표현한 셈이다. 그즈음 나온 《어린이 글씨체첩》이나 《우리 한글》《우리 지도》《새시대 가정 여성훈》 등의 책들도 소박한 출판이념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창업 첫해에 무려 35종을 출간할 만큼 의욕적이었던 을유문화사는 이희승의 《조선문학연구초》를 펴내면서 본격적인 학술출판의 행보를 내디딘다. 이 시기에서 을유문화사의 간판 출판물격인 〈조선문화총서〉를 빼놓을 수 없다. 손진태의 《조선민족설화연구》, 이상백의 《조선문화사연구논고》, 고유섭의 《조선탑파의 연구》, 조윤제의 《조선시가의 연구》 등 쟁쟁한 국학계 학자들의 역저가 국학도서 출판의 큰 줄기를 이뤄낸다.

조선어학회가 편찬한 《큰사전》(전6권)의 대역사는 을유문화사뿐만 아니라 학계·문화계 전체의 긍지를 높인 경우다.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없어졌던 《큰사전》의 원고보따리가 을유문화사에서 빛을 보기까지 햇수로 11년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이 굵직한 알곡들 외에도 다채로운 출판실적을 기록한다. 정지용·박두진·박목월·조지훈·신석초·김기림 등의 시집과 시론, 이태준·안회남·박태원·최명익·김남천·김동리 등의 창작집 등 한국 현대문학사의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펴내는 한편, 이희승·양주동·손진태·김상기·이숭녕 등 국학의 태두들의 연구저서를 잇달아 펴냈다.

오늘의 출판계에 넉넉한 그늘

1950년, 전쟁의 포화 속에 4년여 쌓아올린 문화자산이 모두 무너진 가운데 을유문화사는 피난지 부산에서 정진숙 사장 단독체제로 새출발을 하게 된다. 정사장 특유의 뚝심과 사업수완은 잿더미 속의 을유문화사를 다시 우뚝 세워 중흥기를 맞게 된다. 47년 첫권을 선보였던 《큰사전》과 진단학회편 《한국사》를 완간하고 〈대학총서〉 시리즈를 통해 교양도서를 배출하는 한편 〈구미신서〉 〈번역선서〉시리즈, 한국 초유의 〈세계문학전집〉 등 선진국의 새로운 학문경향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인 의욕을 보인다.

60년대 '관철동 시대'의 전성기와 사옥을 신축한 70년대 '수송동시대'에는 인문학 출판의 총본산으로서 한국출판계의 큰 자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시기에 전작소설만 엮은 〈한국신작 문학전집〉의 발간은 소극성을 벗어나지 못했던 문학계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여기에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을 비롯, 정한숙·유주현·손소희 등 쟁쟁한 정예작가들이 가세해 전집의 목록을 빛내고 있다.

또 한국 최초의 〈세계사상교양전집〉을 기획,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장자》, 시튼의 《동물기》 등 3차에 걸쳐 전39권을 발간,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편으로 한국학 연구성과를 집대성하는 《한국학대백과사전》(전3권)은 이병도·양주동·김재원 백철·이가원·강주진 등 당대 최고 국학 연구자가 책임편집위원을 맡아 광범한 국학의 숲을 일궈낸다.

한편, 초창기의 월간 학술교양지 《학풍》(1948 창간)과 전성기 때 펴낸 출판정보지 《도서》, 그리고 을유의 신간정보 소식지인 월간 《을유저어널》의 창간은 특기할 만하다. 현대사에서 창간한 잡지를 인수 발간한 《도서》는 애서가·학자들이 주독자층이었다. 우리 고서의 연구성과, 책 제작에 관련된 수필, 애서·장서에 관한 토막글로 꾸민 출판정보지로서 이 땅에 출판저널리즘을 개척한 점이 평가되고 있다. 1962년에 창간한 사보 《을유저어널》은 B6판 4면으로 발행했다. 명저에 대한 수준높은 해설과 출판소식, 에세이, 을유의 기획출판물 소개, 광고 등으로 꾸민 사보는 서지학의 주춧돌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9년 동안 발행했다.

80년대 이후 출판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을유문화사가 지켜왔던 인문학 지향의 정신을 무력화시킨 게 사실이다. 정보화시대·멀티미디어시대를 맞아 을유문화사도 이제 새로운 변신의 갈래길에 서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번 사사는 50년의 튼실한 뿌리를 박고 서 있는 을유문화사라는 거목이, 천박한 실용주의와 부침이 심한 출판계에 얼마나 넉넉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지 생생히 증언해주고 있다.

《을유문화사 50년사》는 내용과 형식에서도 사사의 전범을 보여준다. 을유의 발행도서를 중심으로 엮은 시기별 해설은 관련기록과 증언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 당시 출판의 사회문화적 흐름까지 읽을 수 있다. 500여컷에 이르는 사진도 귀중한 자료이며, 부록에 실린 연표와 발행도서 목록은 기록이 드문 우리 출판계 현실에서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 김지원 기자